

News

이창용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 확실시

서울경제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등 물가 상방 압력 높아지기 때문

미국 연준의 추가 백스텝으로 이르면 7월부터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어… 올 3~4월 외국인 투자 자금 71억 7,000만 달러 순유출 등 자금 이탈 확대되는 분위기

5대銀 3주만에 예·적금 12조 몰렸다…'역머니무브' 가속화

뉴스1

5대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 잔액이 20일 기준 709조 7,060억원으로 집계… 전월말대비 3주 만에 11조 9,837억원 증가하며 총잔액 700조원 돌파

선진국의 양적 긴축 우려와 조정국면 등 자본시장의 불안이 원인으로 파악… 미국 연준 등 전세계적 유동성 흡수 움직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은행 보증대출 400조 '역대 최대'…코로나發 '시한폭탄'

데일리안

국내 은행권 보유 보증대출 잔액 작년말 기준 총 394조 819억원으로 19년 말보다 45.2% 증가하며 역대 최대 경신… 사상처음 400조원 돌파 눈앞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분산 효과, 코로나19 지원책의 상당수가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끼고 이루어진 점 등 보증대출 증가…코로나19 이후 부채 증대 가속화 우려

카카오뱅크,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로

한국경제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합류… 은행연합회, 카카오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 대표로 비상임이사 포함시키는 안건 논의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 추가 설치… 금융위원회의 정관 변경 인허가 마치는대로 총회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를 이사회 참여시킬 계획

'중대재해 보험' 드디어 나온다…손보사 '호재'

대한금융신문

대형 손보사들, 이르면 내달부터 중대재해 배상 책임보험 출시 앞두어… 주계약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기업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 보장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 정해… 업계는 관련 시장을 500~600억대로 추산 중… 그간 대형 사고 속속 발생하며 기업의 니즈 확대 중

1년새 2배… 삼성화재 날개 펴자, 보험사 해외점포 실적 날았다

머니S

보험사 해외점포들, 작년 기준 순이익 1,148억원으로 전년대비 99.1% 증가… 이중 삼성화재의 7개 해외법인은 395억원으로 전체 중 34.4% 차지

보험업 부문에서 전년대비 47.3% 증가한 2,910만 달러 순익… 투자업 부문에서는 생보사들의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대율 개선 등으로 20만달러 이익내 전년대비 흑자전환

공모주 넘겨 받은 일임투자사, 바로 못 판다

뉴시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일임투자회사 등이 투자자 재산으로 공모주 배정받은 뒤 의무보유확약 끝나기 전 금융사로 넘기면 해당 회사 바로 팔 수 없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 지정시 의무보유확약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수요예측 참여 제한

당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시행령 선포 검토"

연합인포맥스

국민의힘과 정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선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밝혀… 국회 입법 작업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먼저 시행령 선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공적 기능 가지고 성장한 상태라 투자자 피해 방지 마련할 예정… 단기적으로 시행령, 중기적으로 기본법 제정 서둘러 대응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